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12. 24.(금) / 총 14매 (본문5, 참고9)	
담당 부서	공원정책과	담당자	·과장 김현진, 사무관 김동희, 주무관 이수연 ·☎ (02) 2131-2033, 2035
보 도 일 시		2021년 12월 27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7.(월) 06:00 이후 보도 가능	

300만㎡의 공원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확정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마련하고,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이번 계획변경은 지난 ‘14.12월 계획 확정 이후, 용산공원 경계확장, 용산기지 부분 반환 및 개방, 국민소통과 참여 등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 * **경계 확장** :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군인아파트 부지(‘20.8), 옛 방위사업청 부지(‘20.12) 총 57만㎡ ↑
 - 국민소통 : 국민참여단 활동과 그 결과를 담은 국민제안문 발표(‘21.7)
 - 부분반환 : 스포츠필드 및 소프트볼장(약 5.3만㎡ / ‘20.12)
- 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전문기관(한국조경학회)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21.12.13~12.20)를 거쳐 확정하였다.

□ 이번 종합기본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 편입부지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

-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전쟁기념관 등 용산공원조성지구로 신규 편입된 부지들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부지) 남산과 용산공원을 생태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부지 내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에 활용한다.
-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공원 조성 이후에도 기존 시설들이 유지되는 곳으로 해당 부지들을 통해 용산공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계부를 계획한다.
- 아울러, 전쟁기념관의 경우 인접된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야외 전시공간으로 조성하여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산가족공원은 생태적 리모델링을 통해 공원의 생태성을 더욱 강화한다.

< 추가 편입부지 기본구상도 >



② 부문별 추진계획 보완

- '21.7월 발표된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문을 바탕으로 스마트공원·국민참여 계획을 신설하고 공원시설계획을 보완하였으며, 탄소중립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하여 용산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 (참여계획) 공원 조성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참여·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스마트 공원계획)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24시간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3차원 디지털 복원기술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구현하는 등 공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 아울러, 스마트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감안하여 공원 조성 및 운영 시점에 미래의 새로운 기술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획했다.
- (탄소중립) 용산공원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녹지조성 시 탄소흡수율을 고려하고, 공원 내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탄소흡수 및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 (공원시설 계획) 공원부지 내 기존 건축물은 역사·예술·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도 존치하고, 존치 건축물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역사·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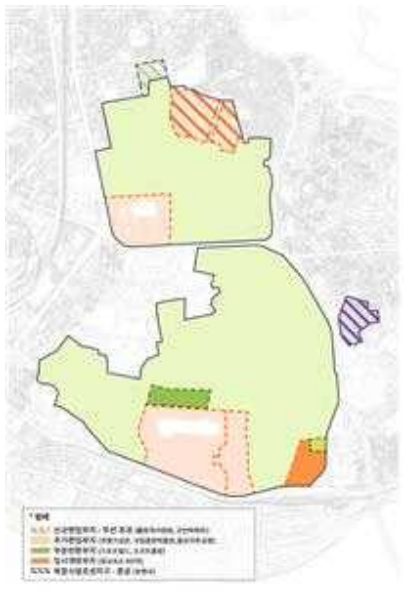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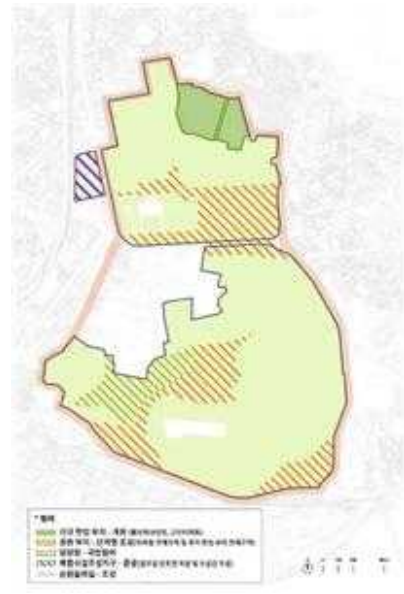



《 존치건축물 활용방안 》

- **생태** : 공원의 생태적 특징을 관찰하거나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등 (예: 온실, 수목·초화 전시관 등)
- **역사** : 용산기지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며 이를 극복해온 역사를 기념하는 시설,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상징성에 부합하며 이를 경험하는 시설 등 (예: 독립전쟁기념관, 용산공원 역사박물관·아카이브 등)
- **문화/예술** : 국가공원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시설 (예: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콘서트장, 공연장 등)
- **교육** : 생태, 역사, 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설 등(예: 교육관, 실습실 등)
- **기타** : 소, 중, 대규모의 이벤트를 수용하는 공간, 국민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운영하는 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 검토 필요



③ 단계별 조성계획 수정

- 기존 계획에서는 '16년 전체 기지 반환이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7년 공원 조성 완료 및 개원이라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한미간 협의에 따라 기지 반환 일정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기지 반환시점을 N년으로 설정하고 N+7년 개원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 구체적으로, **반환 이전까지 부분 반환과 반환 부지의 개방을 위해 노력하면서** 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고,**
 - **반환 이후에는** 오염정화가 필요한 부지에 대한 **정화공사**를 진행하면서 그간 수립된 **계획과 설계를 보완하고, 오염정화가 필요하지 않은 부지(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부지 등)는 우선적으로 착공**한다.
 - 조성공사를 위한 준비를 마친 후에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사하여 개방하고, 개원 후에는** 공원과 주변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단계별 조성계획>

1단계: 기지반환 이전(~N)	2단계: 조성 준비단계(N~N+3)	3-1단계 : 공원조성단계
 <p>1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기존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 1.2 기존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1.3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1.4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1.5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p>2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 2.2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2.3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2.4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2.5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p>3-1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1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 3-1.2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3-1.3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3-1.4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3-1.5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3-2단계 : 공원조성단계	3-3단계 : 공원조성단계	4단계: 공원개원.확산(N+7~)
 <p>3-2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2.1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 3-2.2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3-2.3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3-2.4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3-2.5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p>3-3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1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 3-3.2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3-3.3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3-3.4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3-3.5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p>4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 4.2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4.3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4.4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4.5 공공시설물(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공연장 등)의 용도변경

□ 국토교통부 김복환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되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산공원을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진 국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원정책과 김동희 사무관(☎ 02-2131-20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목적

○ 법적 근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용산공원정비 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목적) 용산공원조성지구, 복합시설조성지구, 공원주변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성, 관리를 위한 종합적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정립

□ 계획의 성격

- ①최초의 국가공원계획, ②종합계획, ③장기전략계획, ④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계획, ⑤참여계획, ⑥통합적 계획

□ 종합기본계획 변경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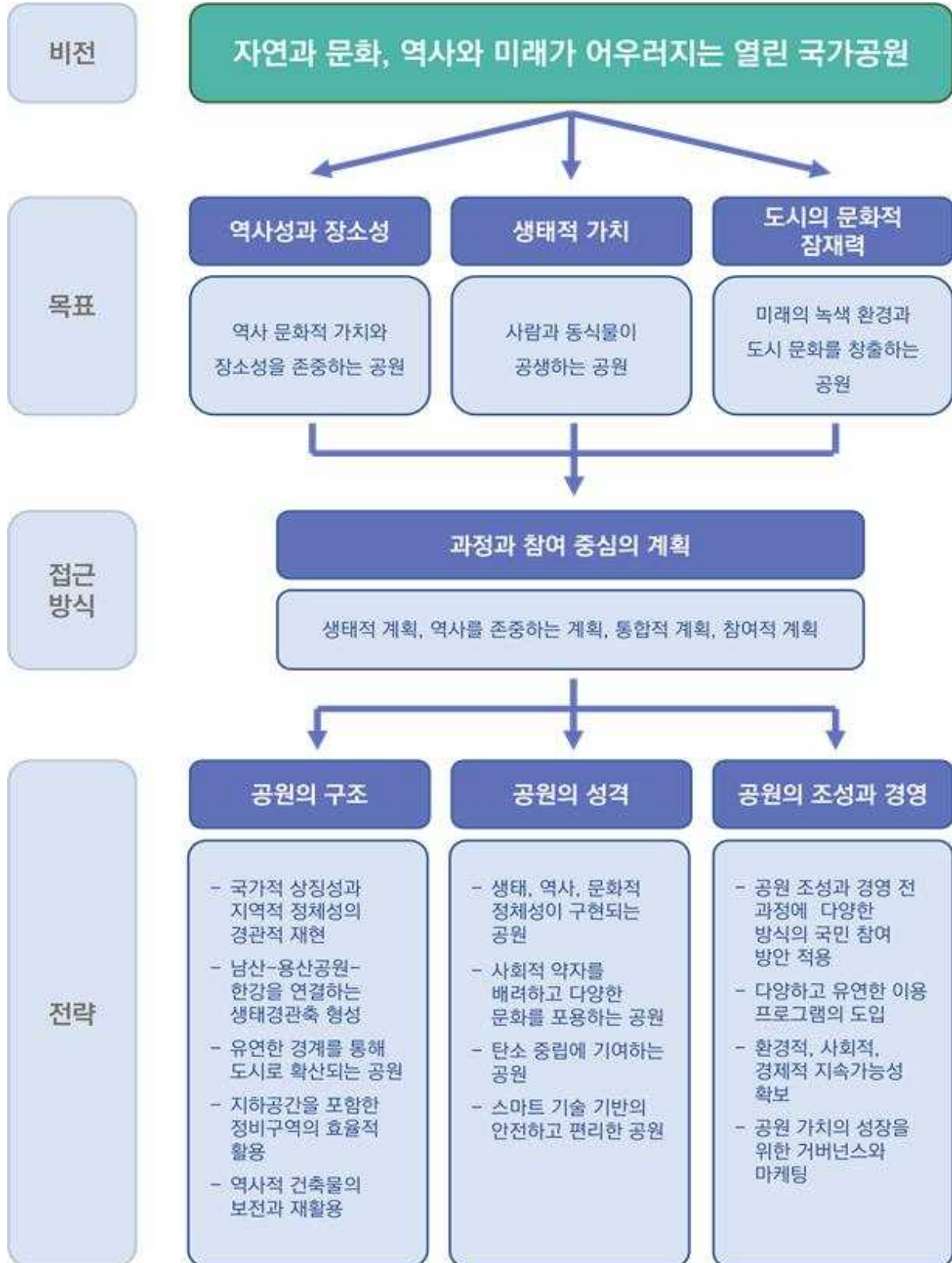
- (용산공원 경계의 확장)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 옛 방위사업청 부지, 군인아파트 부지 편입(243만㎡ → 300만㎡)
* 향후 미대사관 직원숙소 부지 편입 예정
- (용산기지 부분 반환 및 개방) 장교숙소 5단지 개방('20.7), 스포츠 필드(약 4.5만㎡) 및 소프트볼장(약 0.8만㎡) 반환('20.12)
- (국민 소통·참여 진행) 용산기지 버스투어('19), 국민참여단 활동 및 7대 제안 발표('21.7), 용산공원 프렌즈 시작('21.10~) 등

□ 계획 변경의 목적과 방향

- (목적) 공원경계 확장, 기지 부분반환 및 개방, 국민제안문 채택, 주변부·경계부 계획 변경 등 '14년 기본계획 변경 이후 여건 변화 반영
- (방향) ①국민 소통·참여의 성과 반영, ②용산기지 반환일정 변경, 기지 부분반환 및 개방 등을 고려한 단계별 조성계획 보완, ③공원의 탄소중립 기여 방안 및 스마트 기술 도입 방안 모색

II. 용산공원 조성지구 기본구상

□ 비전, 목표, 전략



□ 공원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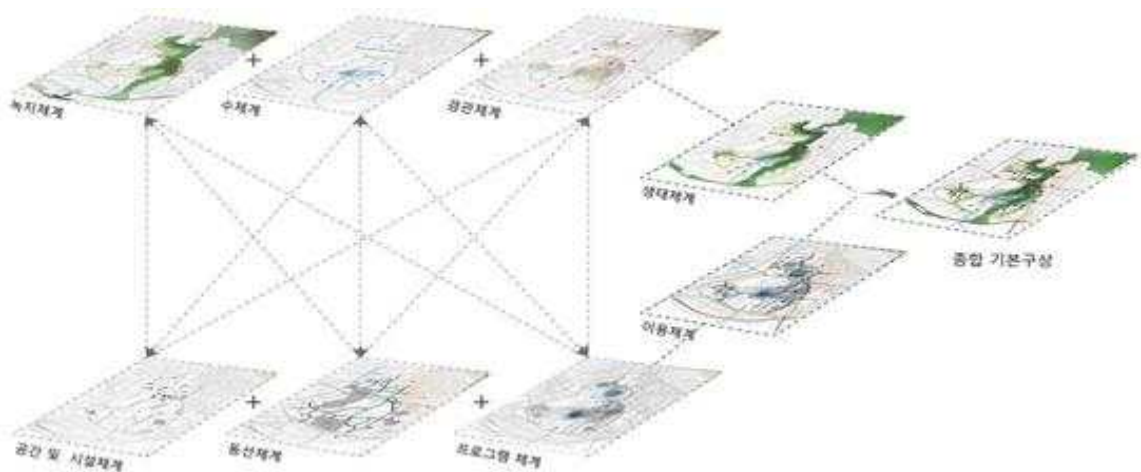
○ 생태체계

- (녹지체계) 남산~공원~한강으로 연결되는 녹지축, 숲 등으로 구성
- (수체계) 만초천 복원 및 호, 내, 습지의 유기적 연결
- (경관체계) 공원 · 남산 · 한강에 대한 열린 조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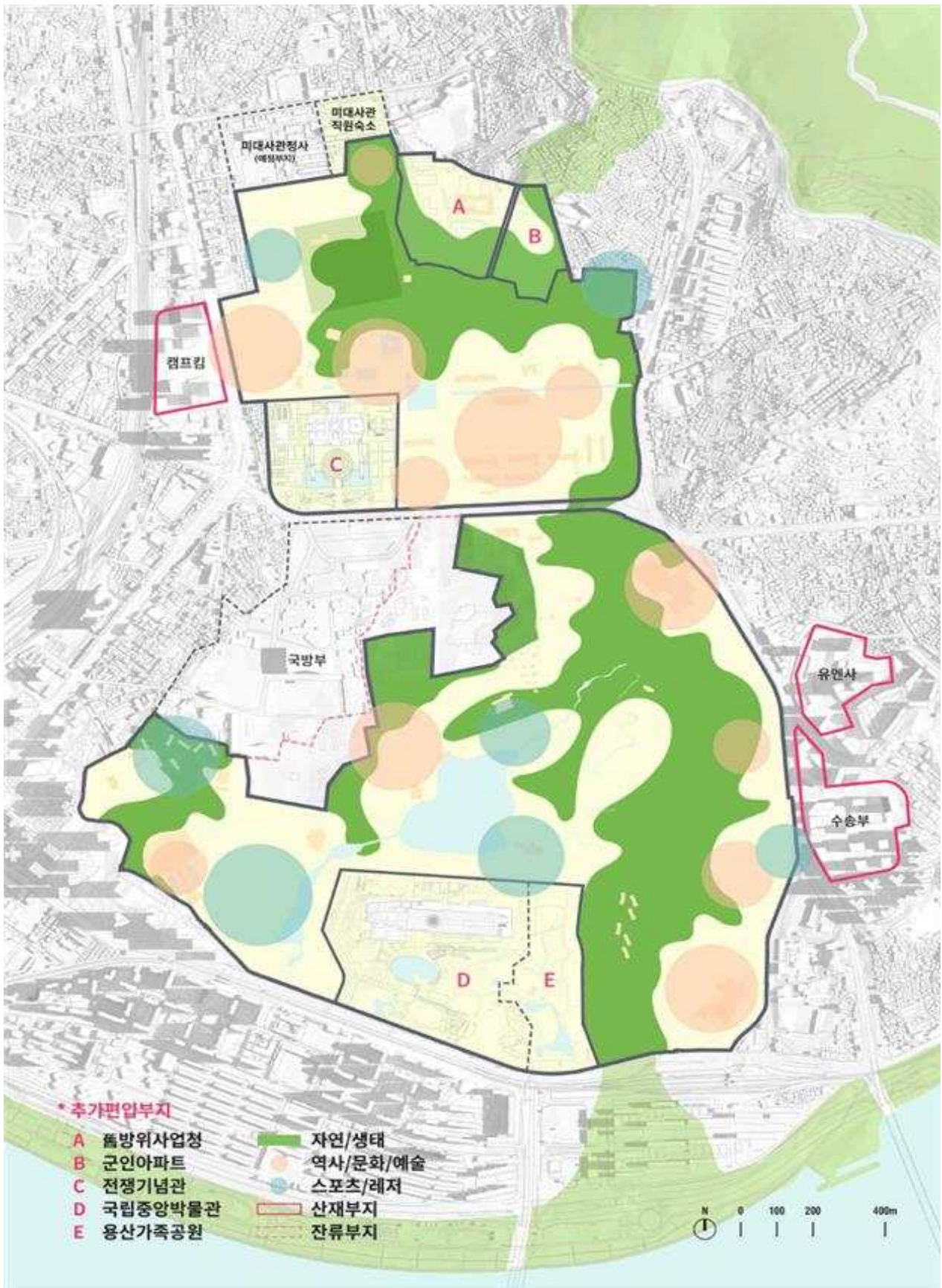
○ 이용체계

- (공간 및 시설체계) 지하공간을 포함해 다양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구조와 시설 활용방안 제시
- (동선체계) 대중교통 및 보행을 통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출입구 설정, 부지를 순환하는 동선과 주변 도시로의 보행 연계성 강화
- (프로그램체계) 공원의 생태와 부지의 역사 · 문화를 강조하고 주변 도시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

⇒ (종합기본구상) 공원의 물리적 골격을 구성하는 생태체계와 공원 이용을 위한 이용체계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원 전체 틀 구성



□ 용산공원 기본구상도



Ⅲ. 부문별 추진계획

□ 경관계획

- 전통미와 현대미가 공존하며 국가적 상징성을 갖는 대표 경관 조성
-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로 나뉜 부지를 하나의 경관으로 통합
- 남산과 한강에 대한 열린 조망 확보, 주변지역과 경관 조화 도모

□ 환경계획

- 훼손된 지형을 회복하여 공원의 자연성과 생태성 확보, 남산~한강 녹지축을 연결하고 주변지역의 공원, 산림, 하천과 연계
- 용산공원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탄소 감축·흡수·기반마련 세 분야의 방안 제시

- (탄소감축) 공원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기술 활용, 공원 내 친환경 차량 운영 등
- (탄소흡수) 탄소흡수계수를 고려한 수목선정 및 식재계획 마련, 녹지면적 확대 등
- (기반마련) 감축과 흡수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공원 이용객·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 공원시설계획

- 녹지·수체계, 경관 등 자연·생태성 회복을 위한 신규 건축물 최소화
- 기존 건축물의 역사·예술·경관·활용적 가치를 바탕으로 보전 대상 선정,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공원 시설로 활용방안 마련
-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고 향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시설 전환을 고려해 탄력적·유동적 시설물 계획 수립

□ 프로그램계획

- 사시사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적 가치 추구
- 부지의 역사적 배경과 자연환경을 존중하는 프로그램 도입

- 다양한 문화시설(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및 주변지역과 프로그램 연계
-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고 미래에 대응하는 문화콘텐츠 구축, 국민과 함께 공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교통계획

- 공원 주변 도로망 및 철도망, 대중교통체계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승용차와 버스 이용객을 위해 출입구와 연계한 주차시설 설치
- 공원 내 보행중심 동선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이동성 확보를 위해 공원 내 주요 거점을 순환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 수도권, 비수도권, 해외 방문객을 위한 광역 교통접근체계 구축

□ 스마트공원계획

- 스마트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한 유연한 적용
- 효율적인 관리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전 국민의 용이한 참여를 위한 스마트 기술(IoT, 모니터링 등)과 빅데이터 활용
 - 스마트 모니터링을 통한 24시간 안전한 공원 조성 및 수목 관리 등, 3차원 디지털 복원기술을 활용하여 매장 문화재와 건축유산 구현

□ 공원운영관리계획

- 국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공원 문화 구축, 전문 운영 시스템 도입
- 공원 계획단계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단계적 홍보
-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안전기반 조성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참여계획

- 공원 조성의 전 과정에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플랫폼 구축,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공원에 대한 정보공개 및 홍보
 - 다양한 참여·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과물의 반영 현황 공유
- 공원조성 이전에 국민들이 용산기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IV. 공원 외 정비구역 관리 기본구상

□ 기본 원칙 및 목표

- (원칙) 공원 네트워크의 주변지역 확장을 통한 '공원 속 도시' 조성
- (목표) ①복합적 도시기능 확보, ②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 ③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포용적 접근성 강화

□ 복합시설조성지구 관리방안

- (캠프킴 부지 관리방향) ①일반상업지역 수준의 고밀 복합개발 추진, ②용산공원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능 다양화, ③공원과 연계한 보행 녹지축 및 통경축 확보, ④남측 만초천 복원 시 수변 공공공간 확보
- (수송부 부지 관리방향) ①복합기능 확보를 위한 용도상향 검토, ②공원 동남권역의 문화적 다양성 강화 활동 지원, ③공원 접근을 위한 동서 간 보행 연계 강화, ④남산 조망경관 관리 및 구릉지 경관 관리

□ 공원 주변지역 관리방안

- (공원접근) 공원 인접지역 가로 활성화 및 주요 거점 지역으로 부터 접근성 강화, 이동수단별 접근성 강화 및 편의·안전 증진
- (주변연계) 경계부 순환 둘레길 조성, 인접 시가지와 연속적인 동선 체계 유지, 공원 주변 광역·지역 녹지축의 중장기 연계
- (조망·경관) 남산 조망 확보, 구릉지 경관을 고려한 건물 높이 관리
* 공원 주변지역을 3개 권역(서측, 동측, 남측)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구체적 관리방안 수립

□ 경계부 관리 방안

- 공원과 공원 외 정비구역이 만나는 '선'적 영역에 대해 6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의 방향성 제시
* 서측권역 2개, 동측권역 3개, 남측권역 1개 경계부로 구분
- 공원 진출입 보행환경 개선 및 접근성 강화, 인접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경계부 형성 등 주변 도시와 상생 추구

V. 단계별 조성계획 및 추진 기반 구축

□ 단계별 공원 조성계획

- (기지반환 이전(~N))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 착수, 부분반환 부지를 개방하고 다양한 국민소통 프로그램 추진
- (공원조성 준비(N~N+3)) 설계 보완 및 문화재 발굴·오염정화 등 수행, 구방사청 부지 등 오염정화가 필요 없는 부지 우선 착공
- (공원조성(N+3~N+7)) 공원 접근성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여 개방, 국민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공원 조성
- (공원개원 및 확산(N+7~)) 공원 핵심네트워크(녹지, 동선체계)의 주변부 확산, 국내외 홍보, 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자원 조달 방안

- 공원 조성 비용
 - (비용추정) 약 2조 1천 4백억 원, 조성계획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재원조달) 국가와 서울시(법률상 비용부담주체)의 적절한 비용 분담,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민간자본유치, 기부 및 기증 장려 등
- 공원 관리 및 운영 비용
 - (비용추정) 관리·유지 비용 연간 약 250억 원, 콘텐츠 운영·개발 수준에 따라 연간 최소 약 100억 원의 추가 비용 소요
 - (재원조달)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점용료, 광고수입, 후원금, 행사유치 등을 통한 재원 확충방안 강구

부록. 추가 편입 부지 기본구상

□ 옛 방위사업청 및 군인아파트 부지

- 남북 녹지축 연결을 위해 기존 공원과 생태적으로 연계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남산·공원·주변지역에 대한 전망공간으로 활용
- 지역주민 및 예술가, 주변학교 및 주민센터 등과 프로그램 연계
- 역사적 건축물(옛 해병대사령부 본관, 해병대 초대교회 등)을 존치하고 문화예술프로그램에 활용

□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 (공통사항) 부지 주변 지하철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출입구 및 동선 계획 수립
 - 공원과 만나는 경계부의 보차 간섭 최소화 방안 검토, 공원과의 통합적 설계 및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전쟁기념관) 야외 전시공간을 공원 부지로 확장하여 문화공간 조성, 용산공원과 새로운 공유 인터페이스 및 공동 진입광장 검토
- (용산가족공원) 남북 녹지축 연결을 위한 생태적 리모델링

< 추가 편입부지 기본구상도 >

